

# 100년 역사 '경방' 광주공장 멈춘다

### 국내 1호 상장 기업...31일 중단 베트남으로 이전 용인공장도 생산 중단...지역 경제·섬유 산업 위축

국내 1호 상장 기업이자 100년 역사를 가진 (주)경방 광주공장이 오는 31일로 문을 닫는다. 경영 악화에 따른 조치다. 광주공장에서는 생산했던 면사는 베트남에서 생산하게 된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경방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오는 31일부로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내 광주공장의 면사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당초 내년 3월 31일 광주공장의 생산 중단을 예고했으나 이보다 7개월 앞당겼다.

경방은 "앞으로 면사를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라면서 "단기적으로 매출 감소 등 영향이 불가피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 효율성 증대로 인해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생산중단 분야의 매출액은 453억 원으로, 지난 2017년 연결기준 매출액 3608억 원의 12.56%에 해당한다. 광주공장이 멈추면 근로자 15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노사는 지난달 말 교섭을 통해 위로금 지급, 개별 협의에 따른 전직, 협력업체 재취업 협조, 공장 재가동시 퇴직자 우선 재고용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방은 반기 보고서에서 "광주공장은 일부 투자 설비를 베트남 공장으로 이전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 증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방은 매년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2013년부터 베트남에 공장을 건설해 생산해왔다. 또 지난해 4월부

터 광주공장의 설비 일부도 베트남 이전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섬유 수요가 줄면서 베트남 사업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경방은 "국내 경기 부진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고 수출은 선진국 경기 회복 지연으로 주문이 감소했다"며 "재고 증가와 수익성 악화로 영업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방의 상반기 매출은 171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739억원)작년보다 1.5% 하락했고, 영업이익16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1.5% 줄었다. 특히 지난해 76억원 영업손실을 낸 섬유사업부는 올 상반기에만 7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경방은 광주공장 뿐만 아니라 용인공장도 생산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용인 공장이 문을 닫게 되면 경방의 국내 공장은 염색 노하우를 활용해 사명을 생산하는 경기도 안산의 반월공장과 남계

됐다.

경방은 1919년 '우리 옷감은 우리 손으로'라는 기치를 내걸고 성장방적으로 출발했다. 국내 섬유산업이 이끄러 1956년 3월 3일 '회원번호 001'로 상장했으며, 1988년 2월 광주 하남산단에 광주공장을 짓고 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가중되는 인력난과 저개발 국가의 값싼 제품이 쏟아지면서 경영 환경이 악화됐다. 이후 2013년 일부 설비를 베트남으로 이전, 해외생산을 시작했고, 이번에 광주공장 설비 모두를 베트남으로 옮기게 됐다.

지역 경제계는 "경방과 전방, 일신방직 등 광주 방직공직들이 잇따라 문을 닫는 등 섬유산업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지역 제조기업들의 해외 이전, 일본 수출규제라는 악영향까지 겹쳐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소재·부품 기술 자립 대학이 역할해주길"

### 文대통령, 국립대총장 오찬...시간강사 고용유지 당부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소재·부품 기술 자립을 위한 국내 대학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세정 서울대 총장 등 전국의 국립대 총장 24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요즘 기술의 국산화, 소재·부품 중소기업의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여러 대학이 기술 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 감사드린다"며 "그런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해주시고 필요하면 정부가 R&D(연구개발)나 지역 예산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국립대 총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정부와 산업계가 '핵심기술 독립'을 위해 나선만큼

대학도 이를 뒷받침해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립대학이 지역혁신의 거점 역할을 더욱 강화해 줄 것과 함께 4차혁명 시대에 대응한 학과·전공의 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지금도 국립대가 지역혁신 거점 역할을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며 "지역 국립대학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와 지역산업계가 함께 갈 때 지역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국가균형발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을 거론하며 "시간강사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인데, 지금까지로 오며 강사 일자리를 줄이는 식의 결과가 빚어지고 있어 걱정이 많다"며 "시간강사의 고용 유지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대입 정시 50% 이상 확대

### 노형욱 국조실장 "동의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22일 대학입시에서 정시모집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정의를 담보하기 전까지 정시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 50% 이상으로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 아닌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문에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고 답했다.

또 "지난번에 (대입에서) 수능 비중을 좀 높이는 것을 추진해 왔는데,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상황인 것 같다"며 "참고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시 확대에 동의하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대학시스템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논란과 같은 일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자유한국당 성일종의원의 지적에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필요가 있고, 거기에 제도개선의 필요가 있다면 관련 부처와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조 후보자 딸 입시 논란과 관련해 교육부에 조사를 지시하라'는 성 의원의 요구에는 "첫 번째로 본인에 대한 소명 기회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문제가 있다면, 확실하다면, 그런 단계(교육부 조사 지시)의 검토가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들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다뤄달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 비전 만남 김현종 "북미대화 곧 전개될 듯"

### 비핵화 협상 프로세스 한미간 긴밀 협조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2일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회담한 뒤 "북미 간에 대화가 곧 전개될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1시간 10분가량 비건 대표와 면담을 마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북한 외무성이 이날 오전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고 밝혔는데도 북미 대화 재개를 낙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곧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북측에서 대화 재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신호가 있었다는 것이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차장은 아울러 "지금까지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비판적인 멘트를 계속했지만, 우리가 건설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절제된 것에 대해서 미국 측이 높이 평가를 했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비핵화 협상 프로세스에서 한미간 긴밀히 협조가 되고 있다"고 평

가하며 "비건 대표와 카운터 파트인 이도훈 본부장 사이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유되고 일이 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면담에서 비건 대표가 먼저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운을 띄웠고, 김 차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국익에 합치하도록 판단을 잘 하겠다"고 답했다.

비건 대표는 서울에서 2박 3일간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귀국 날짜를 하루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영국 EU 탈퇴 대비 한-영 FTA 서명

### 통상관계 연속성 유지...양국 공동변영 촉진

두달후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할 경우에 대비한 한국과 영국 간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 서명됐다.

양국은 한-영 FTA를 기존 한-EU FTA 특혜무역 수준으로 체결해 10월말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Brexit)가 일어나더라도 통상관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게 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영국의 통상교섭본부장과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장관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런던에서 한-영 FTA 협정문과 3건의 서한에 서명했다.

영국의 본부장은 "한-영 FTA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 양국의 공동번영을 촉진할 것"이라면서 "브렉시트와 같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벗어나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교역과 투자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러스 장관은 "양국이 FTA 체결을 통해 통상 관계의 연속성을 마련함으로써 브렉시트 이후에도 양국 기업들은 추가적인 장벽 없이 교류할 수 있게 됐고,

양국 간 교역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 6월 10일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 및 국내 심의절차를 진행했으며, 이날 서명을 마지막으로 양국간 협▲상 절차를 완료했다.

영국은 EU에서 두 번째로 큰 우리의 교역 상대국이다. 지난해 양국 간 교역규모는 131억7천만 달러(수출 63억6천만 달러·수입 68억1천만 달러)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승용차, 선박, 해양구조물 등이고 수입품은 원유, 승용차, 의약품 등이다.

정부는 한-영 FTA의 적기 발효를 위해 브렉시트 예상 시점인 10월 31일 이전에 국회 동의 등 비준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엔 정식 타결된 한-영 FTA는 한국의 17번째 FTA가 된다.

한-영 FTA는 상품 관세의 경우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10억 투자

2분 모집입니다!  
(주)오천정매, 010-3605-5000

- ▶ 10억이 20억이 될 수 있습니다
- ▶ 골프연습장 공사 중단된 토지
- ▶ 공동소유 개발 및 매매
- ▶ 경기도 연천군 임야 등 45000㎡

2019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971)	광주교육대학교(2071)
모집/과정	· <b>금요일 오전반</b> 2019. 9. 6. (금) 09:10 (초급반)	· <b>금요일 오후반</b> 2019. 9. 6. (금) 14:10 (중급반)
	· <b>토요일 오전반</b> 2019. 9. 7. (토) 09:10 (특급반)	· <b>토요일 오후반</b> 2019. 9. 7. (토) 14:10 (고급반)
모집기간	<b>2019. 8. 1(목) ~ 9. 7(토)</b>	
수업기간	<b>2019. 9. 6(금) ~ 2020. 2. 8(토)</b>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b>09:10~13:00</b>	<b>14:10~18:00</b>
수료후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li> <li>·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li> <li>·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li> <li>· 각급학교 (병과 후 교육) 강사 추천</li> <li>·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 사법) 취득기회 부여</li> </ul>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773901-01-476736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 062)950-3582~4 ·지도교수(선병관):010-3614-4160 <b>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b> http://always.kwu.ac.kr	·문 의 : 062)520-4243 ·지도교수(선병관):010-3614-4160 <b>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b> http://www.gnue.ac.kr/

지난 20년간 13,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강의

(컨설팅과 재테크)

전임강사 : 정 영 수 경영학박사  
(부동산 전공)

- 평생교육공로 교육과학부장관상 수상
- MBC - TV 방송국 경제특강
- KBC - 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강의
- 전남대 20년 강의(전대 용봉인상 수상)
- 공무원수원,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회 이상 특강

특 전

자격 취득 희망시, 공인부동산빌딩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권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도록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모임제 결성하여 평생지도하여 드림

- ▶ 강의일정 | 2019년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19:00~21:00
- ▶ 강 의 료 | 210,000원(15주) \*선착순 50명
- ▶ 조선대 평생교육원

전화 062)230-7700-2(010-5613-1808)

농업회사법인 나주농산  
농산물 저온창고  
임대·보관

■ 콘크리트 신축건물  
20평~23평 등  
(총 400평)

배·사과·양파 등  
임대보관

· 신년서비스 ·  
임대료 저렴하게 드림

위 치 나주시 문평면사무소 뒤  
연락처 010-3993-3022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